

# 이 집 트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7.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1
V. 종합의견 .....	14

##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sup>2</sup>	G D P	2,552억 달러 (2013년)
인구	82.1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3,109달러 (2013년)
정치체제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통 화 단 위	Egyptian Pound (E£)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 율(달러당)	6.87 (2013년 평균)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와 8,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북부 아프리카의 대국임.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에 위치하여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정책 등을 통해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하고 있음.
- 2010년 말 시작된 중동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2011년 1월 Mubarak 대통령의 30년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2012년 6월 Morsi 후보가 최초의 민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이슬람주의 정책 강요와 권력 기반 확대에만 급급하다 집권 1년 만에 전국적 반정부 시위와 군부의 개입으로 권좌에서 축출되었음.
- 이후 과도정부를 거쳐 2014년 5월 대통령 선거에서 el-Sisi 국방장관이 당선되어 취임하였으나, Morsi를 지지하는 이슬람주의 세력과 신정부를 지지하는 세속주의 세력의 충돌로 사회 불안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시나이 반도는 2011년 Mubarak 퇴진 이후 소요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임.
- 한편, 아프리카 제3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2013년 기준 1.8조 m<sup>3</sup>)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계속되는 정국 혼란과 치안 공백의 여파로 관광수입 급감,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영업 중단 내지 철수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Morsi 정권의 퇴진 등 정치적 불안 지속으로 경제 회복에 지장

- 이집트 경제는 2011년에는 반정부 시위, Mubarak 대통령 퇴진 등의 여파로 1.8% 성장에 그쳤음. 이후 2012년 6월 Morsi 대통령 선출 후 경제도 점차 회복되어, 2012년 경제성장률은 2.2%로 소폭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13년 군부의 개입에 의한 Morsi 대통령의 퇴진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회적 불안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2013년 경제성장률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2.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사회 혼란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금년 2월 한국인 관광객 3명이 시나이 반도에서 피살된 사건의 영향으로 관광 부문의 회복이 지연되어, 경제성장률은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정부의 최신 공식 통계에 따르면, 관광 부문의 수입은 2012년 100억 달러에서 2013년 59억 달러로 41%나 감소하였음.

#### □ 민심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 증대로 재정적자 규모 확대 전망

- 재정수지는 확대 재정정책,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12년에는 Morsi 정부가 사회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 최저임금을 75%나 인상하는 등 재정지출 증가로 10.6%를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Morsi 정부의 퇴진 후 과도 정부 치하에서 민심 안정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 지속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3.7%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보조금 축소 노력, 걸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재정지원 등에 힘입어 동 비율이 11.9%로 약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통화 약세 지속, 정치·사회 불안 등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기록

- 생필품 가격 불안정, 사회 불안에 따른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1년 10.1%을 기록하였음. 2012년에는 사회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1%로 낮아졌음.
- 그러나 2013년에는 Morsi 정부의 전복에 따른 사회 불안으로 인한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약세의 지속 및 국제물가 상승의 영향 등으로 9.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사회 혼란에 따른 생필품 공급체계의 일시적인 붕괴로 연료, 식료품 등의 가격이 급등한 점도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2014년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수입물가 상승 압박이 가중되는 한편, 에너지 보조금 삭감,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1월에 단행된 공공 부문 최저임금의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상승한 9.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5.2	1.8	2.2	2.1	1.8
재정수지 / GDP	-8.1	-10.0	-10.6	-13.7	-11.9
소비자물가상승률	11.3	10.1	7.1	9.5	9.9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관광업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013년 기준 GDP의 부문별 비율은 서비스 부문이 48.0%,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 및 석유, 천연가스 개발 등 일반 산업 부문이 37.5%, 면화 중심의 농업이 14.5%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제조업 기반이 대체로 취약하고 관광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 경제 전반이 국내 정치, 중동 지역의 정치/사회 상황, 세계 경기 등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가 국가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주목

- 원유는 최대 유전인 수에즈 유전의 고갈과 신규 유전 개발의 부진으로 일일 생산량이 2003년 75.0만 배럴에서 2013년 71.4만 배럴로 감소한 반면, 천연가스는 나일 강 삼각주와 서부 사막 지역에서 탐사·채굴에 성공하여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
-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2013년 1.8조 m<sup>3</sup>로, 이는 아프리카 대륙 3위 규모임. 연간 생산량은 2003년 301억 m<sup>3</sup>에서 2013년에는 561억 m<sup>3</sup>로 증가하였음.

## 다. 정책성과

### □ Morsi 정부, 경제활성화 등한시로 경제성장률 하락

- 민주화 혁명으로 인한 사회 혼란의 여파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5.1%) 대비 급락한 1.8%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집권한 Morsi 정부가 경기부양 등 경제활성화를 등한시하고 권력기반 확대에만 급급한 결과 2012년 경제성장률도 2.2에 그쳤음.
- 2013년에 예정된 국영철도 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망 확장 공사 등 경기부양책을 겸한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들은 Morsi 정권 붕괴 후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음.
- IMF에 따르면 이집트의 실업률은 시민혁명 후인 2011년 12.0%로 급등한 뒤 2012년 12.7%, 2013년 14.7%로 계속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도 14.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됨.

## □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에너지 보조금 감축 단행

- 재정수지 적자 규모의 축소는 이집트 정부의 경제현안 가운데 최우선 과제이나,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이 계속되어 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식료품 등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이 불가피한 실정임.
- 이에 이집트 정부는 7월 4일 자정을 기하여 유류가격 인상을 전격 단행하였음.
  - 옥탄가 80% 휘발유의 가격은 종전보다 78%나 인상되었으며, 옥탄가 92% 휘발유의 가격은 종전보다 40% 인상되었음. 아울러 대중교통과 산업용 수송에 활용되는 경유 가격은 64%, 천연가스 가격은 용도별로 30~70% 인상되었음.
  - 이집트 정부는 금번 유류가격 인상이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서민층에 계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보조금 삭감으로 2014/15회계연도에 정부예산 6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아울러 이집트 정부는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인상도 단행하였으며, 향후 5년간 전력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폐지해나갈 계획임.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전력요금이 현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집트 정부는 올해 총 재정지출 절감 목표를 연 예산의 13%에 이르는 약 140억 달러로 잡고 있으며, 동 목표 달성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14/15회계연도 말에는 10%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3. 대외거래

### □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재 등 수입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 전망

- 경제 발전과 인구 증가에 따른 상품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음. 2012년에는 경제 회복을 위한 자본재, 원자재 수입량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전년 대비 31.5%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전년(2.4%) 대비 상승한 2.7%를 기록하였음.

- 2013년에는 서비스수지와 이전수지가 전년도에 이어 흑자를 기록하고 밀의 국제가격이 2012년 대비 하향세를 유지하는 등의 요인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축소됨에 따라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도 전년보다 개선된 1.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관광 부문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제조업 부문과 석유 부문의 수출이 부진을 보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보다 상승한 2.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및 외국인투자 위축으로 외환보유액 감소

- 외환보유액은 2011년에 정치, 사회 불안에 따른 관광수입 감소, 외국인 투자의 감소 및 투자 회수, 외국인들의 이집트 국채 구매,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인해 동년 말 기준 136.6억 달러로 전년(323.5억 달러) 대비 급감하였음.
- 이후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불발되어, 2012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24.1% 감소한 103.7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카타르 정부가 2013년 초 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여, 2013년 말 외환보유액은 전년 대비 19.0% 증가한 123.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의 GDP 대비 비중이 2011년 Mubarak 정부의 붕괴 이후 계속되는 사회 혼란의 영향으로 거의 매년 1% 미만에 그치는 등 외환 유입의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걸프 지역 왕정국가들로부터 6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외환 보유 상황은 2015년까지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 단기외채 비중의 상승으로 외채상환능력에 우려 제기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GDP의 지속적 증가로 2006년 42.2%에서 2011년 18.3%까지 하락하였음. 그러나 Mubarak 정부 붕괴 후 경제상황이 오히려 악화됨에 따라 대외차입이 증가, 2013년에는 그 비중이 다시 22.0%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D.S.R.은 2013년 7.8%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도 2011년 67.6%에서 2012년 103.9%로 급상승한 데 이어 2013년에도 90.7%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외채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 상 수 지	-4,504	-5,484	-6,972	-3,294	-6,496
경 상 수 지 / G D P	-2.1	-2.4	-2.7	-1.3	-2.5
상 품 수 지	-20,120	-19,398	-25,516	-30,192	-30,850
수 출	25,024	27,913	26,835	25,094	26,789
수 입	45,145	47,312	52,350	55,287	57,639
외 환 보 유 액	32,351	13,658	10,368	12,343	11,977
총 외 채 잔 액	48,706	42,185	48,031	56,151	62,919
총 외 채 잔 액 / G D P	22.7	18.3	18.5	22.0	22.5
D S R	5.4	6.3	6.4	7.8	8.0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반정부 시위와 군부 개입으로 Morsi 정권 붕괴 및 과도정부 출범

- 2012년 6월 취임한 자유정의당의 Mohammed Morsi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의 정치세력 확장에 몰두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새 헌법 제정을 강행하였음.
- 이에 Morsi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013년 6월 30일 이집트 전역에서 1,400여만 명 규모의 시위대가 집결, Morsi 대통령의 퇴진과 대통령 선거의 조기 실시를 요구하였음.
- 군부의 리더인 Abdel Fattah el-Sisi 국방장관은 7월 3일 오후 9시경(현지 시각) Morsi 대통령의 권한을 박탈하고, 현행 헌법의 효력의 정지와 헌법재판소장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내각 구성을 공식 발표하였음.

- 무슬림형제단은 군부의 개입을 군사 쿠데타로 규정하고 지지자들에게 저항을 촉구, Morsi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유혈 충돌 및 군·경의 무력 진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1,500명 이상 발생하였음.

□ el-Sisi 대통령 당선 후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대대적 탄압 개시

- 이집트 과도정부는 2013년 12월 경찰본부 폭발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무슬림형제단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음. 이에 따라 무슬림형제단은 불법화되어 집회, 시위 등 모든 단체활동을 금지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한편, 무슬림형제단에 가입하거나 재정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처벌의 대상이 됨.
-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형제단이 테러를 자행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한편, 2014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공식 지정하였음.
- 이집트 법원은 2014년 3월 권석재판 3일 만에 무슬림형제단 회원 529명에게 2013년의 반군부 시위에 의한 사망자 발생의 책임을 물어 폭력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4월에도 무슬림형제단 회원 683명에게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음.
- 비록 3월에 사형 선고를 받은 529명 중 49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으나, 줄속 재판을 통해 내려진 집단적 사형 선고는 UN과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하였음.
- 이집트 법원은 5월에도 무슬림형제단 회원 54명에 무기징역, 101명에 징역 2~10년을 선고하고 6월에는 무슬림형제단 회원 10명에 사형을 선고한 데 이어 7월 5일 무함마드 바디에 무슬림형제단 의장 등 37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는 등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음.
- 한편, 5월 26~28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el-Sisi 국방장관이 예상대로 96.9%라는 압도적 지지율로 당선, 6월 8일 대통령에 취임하였음. 그러나 이슬람 세력과 주요 청년/시민단체들이 선거를 보이콧하여 투표율이 부진함에 따라 최종 투표율은 47.5%에 그쳐 과반수에 미달하였음.

-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el-Sisi 정부의 과도한 탄압은 이집트의 이슬람 세력을 결집시켜 반정부 운동에 힘을 실는 한편 그 노선의 과격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앞서 el-Sisi 대통령은 선거 전에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집트에서 무슬림형제단을 영원히 사라지게 하겠다고 선언, 무슬림형제단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예고하였음.
- el-Sisi 정부는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6월 23일 이집트 형사법원이 Morsi 축출 이후 이집트 군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계속해온 위성방송 채널 알-자지라의 특파원 1명(호주인)과 프로듀서 2명(이집트인)에게 허위보도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10년을 선고하여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Mubarak 퇴진 이후 악화된 치안, Morsi 퇴진 이후 더욱 악화

- Mubarak 정권 붕괴 후인 2011년 11월 18일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시작된 '군부 퇴진' 요구 시위가 19일부터 유혈사태로 번져 3일 동안에 35명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부상하였으며, 2012년 6월 대선 이후에도 10월에 타흐리르 광장에서 유혈충돌로 110명이 부상한 바 있음.
- Morsi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살인, 고문 등 250여 건의 경찰 폭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주로 시위대 해산을 위한 것으로 알려짐.
- Morsi 정권 붕괴 후에도 무슬림형제단 지지세력과 세속주의 지지세력간의 폭력적 충돌 빈발, 경찰의 시위 진압 투입에 따른 치안 공백으로 강력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등 치안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 특히 인구밀도가 낮아 경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시나이 반도는 2011년 초 Mubarak 퇴진 이후 테러조직들의 근거지로 전락하여 치안이 크게 악화된 상태임.

- 2014년 2월 시나이 반도 타바 국경 인근에서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Ansar Bait al-Maqdis에 의한 자살폭탄 테러로 한국인 3명과 이집트인 1명이 사망하는 등 테러 공격이 끊이지 않는 상황임.
- 아울러 최근에는 폭탄 테러 공격의 발생지가 시나이 반도 등 국경 지대 또는 외곽 지역에서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등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6월 24일 수도 카이로의 3개 지하철역에서 연쇄 폭탄 테러가 발생한 데 이어 6월 30일 대통령궁 부근에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 경찰관 2명이 사망하고, 7월 3일에는 Morsi 축출 1주년을 맞아 카이로 등지에서 소규모 산발적 시위 및 사제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음.

□ 정파간 충돌 지속으로 사회 혼란 악화에 대한 우려 고조

- 무슬림형제단은 새 정부에 의해 불법화되었으나, 빈민층을 대상으로 한 자선사업으로 민심을 얻어 교육수준이 낮은 보수 성향의 지방 서민층을 지지기반으로 여전히 막강한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음.
- 따라서 무슬림형제단이 추종자들에게 계속 저항을 촉구할 경우, 상황은 군부가 주도하고 세속주의 세력이 지지하는 새 정부와 무슬림형제단이 사주하는 이슬람주의 세력간의 전면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이는 마그레브 알-카에다 지부(AQMI) 등 북아프리카 일대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에게 이집트 내의 이슬람주의 세력과 결탁하여 테러 활동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3. 국제 관계

□ 새 정부,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은 다소 복잡

- 무슬림형제단으로 대표되는 이슬람주의 정치단체의 세력 확대를 경계하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은 Morsi 축출 당시부터 대부분 이집트 신 정부를 지지하며 경제적 원조를 약속하고 나섰음.

-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는 이집트 정부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동 자금지원을 약속하였음.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Abdullah 국왕이 6월에 이집트를 방문하여 el-Sisi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우방으로 자임하고 있음.
- 반면 카타르는 걸프 지역의 왕정 국가들 중 유일하게 Morsi 정권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el-Sisi 정부와는 불편한 관계에 있음.
- 전통적으로 이집트 군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온 이스라엘은 el-Sisi 정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한편, 이란은 군부의 Morsi 축출을 쿠데타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를 '부당한 행위'라 평가하였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외환보유고가 급감하였으나 국가부도위험은 감소 추세

- Mubarak 정권 붕괴 이래 외환보유고의 대폭 감소(2010년 323.5억 달러 → 2013년 123.4억 달러 추정),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중의 증가(2011년 67.6% → 2013년 90.7% 추정)로 인해 일각에서는 외채상환능력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Bloomberg의 이집트 국채 5년물 신용부도스왑 스프레드(CDS spread)는 2012년 11월 30일 393bp에서 2013년 6월 24일 914bp까지 치솟았다가 이후 하락세를 보여 2014년 6월 30일 319bp로 하락, 이집트의 국가부도위험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 IMF와 세계은행에 구제금융 신청, 이후 협상 중단

- 1987년 및 1991년의 대외채무 리스케줄링 이후 외채 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던 이집트는 Mubarak 대통령 퇴진 후 사회 혼란으로 관광 및 외국인투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정상황이 악화되자, 2012년 6월 Morsi 대통령 당선 후 8월 IMF에 48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신청하였음.



## □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전액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음
- 영국 ECGD: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독일 Hermes: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예정임

##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1995년 4월 13일 (북한과는 1963년 8월 24일)

□ 주요 협정: 항공협정('79), 이중과세방지협정('92), 무역협정('96),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96), 사증면제협정('96), 원자력평화협정('01)

### □ 한-이집트간 교역 규모는 민주화 혁명 이후 위축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교역규모는 2011년 민주화 혁명 후 정치적 불안정의 여파로 2010년 31.8억 달러에서 2011년 24.2억 달러로 축소되고, 무역흑자도 2010년 13억 달러에서 2011년 10.4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 2012년에는 교역규모가 26.1억 달러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2013년에는 Morsi 축출로 인한 이집트의 사회 혼란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수출 감소로 인해 25.5억 달러로 다시 감소하였음.
- 2013년 대 이집트 수출은 15.4억 달러(전년대비 15.1% 감소), 수입은 10.2억 달러(전년대비 26.6% 증가)를 기록하였음.
-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재, 중화학공업 제품 등을 수출하고 석유제품, 천연가스 등 석유 자원을 주로 수입하여 양국간 교역구조는 상호 보완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 □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이집트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4년 3월 말 기준 신규 법인 수 36건, 총투자금액 1.9억 달러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

## &lt; 표 5 &gt;

## 한·이집트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5	주요 품목
수 출	1,807	1,535	851	자동차 및 그 부품
수 입	802	1,016	353	석유제품, 천연가스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이집트는 2011년 Mubarak 정권, 2013년 Morsi 정권 붕괴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경제성장률이 대폭 하락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2013년 GDP의 13.7%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 정치·사회 불안정으로 주요 외화수입원인 관광업이 침체되고 외국인투자도 감소하면서 2013년 외환보유액이 2년 전의 38% 수준으로 급감하였으며, 공식 실업률은 2010년 9.0%에서 2013년 14.7%로 상승하는 등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 경제난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30년간 장기 집권한 Mubarak 대통령이 퇴진하였으나, 2012년 6월 첫 민주선거를 통해 당선된 Morsi 대통령 역시 실각한 이후 el-Sisi 국방장관이 대통령에 취임한 현재도 Morsi 지지파와 반대파간의 갈등으로 사회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 GDP 대비 총외채잔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D.S.R. 수준은 비교적 양호하나 (2013년 7.8%)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 비율이 상승하는 등 단기간의 외채상환 전망도 악화된 상태임.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